## LG트윈타워 청소근로자 파업 매듭… "정년 65세로 연장"

S&I코퍼레이션 등 합의안 서명 노동절 직전 4개월여 만에 종식 청소근로자 전원 마포빌딩 근무 정년 5년 연장 등 추가고용 약속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트윈타워 청소근로자 문제가 4개월여만에 최종 해결됐다.

근로자들이 지난해 12월16일부터 고용 문제를 놓고 파업 농성을 하며 사측과 줄다리기를 하다 136일만에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2일 에스앤아이(S&I)코퍼레이션 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LG트윈타워 청소근로자들이 LG마포빌딩에서 근 무한다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면서 농 성을 끝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둔 시 점에 극적으로 타결을 본 것이다.

합의안에는LG그룹계열사로그룹 이 보유한 건물의 관리를 맡은 S&I코 퍼레이션 외에도 당초 트윈타워 청소 용역회사였던 지수아이앤씨(INC),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 부 LG트윈타워분회가 동참했다.

노사는 오는 7월1일부터 농성 중인 청소근로자 전원을 LG마포빌딩에 근 무하도록 하고, 현재 만 60세인 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 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 개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 정년도만 65세로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만 65세 이후엔 만 69세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 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발단은 지난해 말 LG트윈타워 청 소용역을 기존 지수INC에서 또다른 용역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작됐 다. LG트윈타워의 청소용역을 새로 맡게된 회사는 인력을 새로 채용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청소용역을 맡았 던 지수INC 소속 청소근로자 80여명 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자 지수INC 소속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기존 청소근로자들을 새로 운 용역회사가 모두 고용 승계하고, 트윈타워 근무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고 주장했다.

S&I코퍼레이션측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수INC가 고용을 승계하 도록 하되, 트윈타워가 아닌 지수IN C의 또다른 청소용역 사업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상안을 내놨 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도 조정 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간 협상은 쉽 지 않았다.

시간은 1월을 지나 2월로 넘어왔고 노조의 파업은 이어졌다.

파업 장기화와 기업 이미지 타격 등 을 우려한 사측은 다시 중재안을 내놨 다. 농성중인 근로자 30명 전원을 마 포대교건너편의 LG마포빌딩에서 근 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에 전달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만 65세 이상 근 로자들의 추가 고용도 약속했다.

LG마포빌딩은 여의도 트윈타워에 서 약 3㎞, 대중교통으로는 10여분 거 리에 있는데다, 지하철 5·6호선이 만 나는 공덕역도 가까워 근로자들의 출 퇴근이 여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 문이다. 트윈타워 청소용역사를 바꾼 상황에서 자칫 새 회사에 고용된 근로 자들의 고용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됐다.

S&I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대승적 인 차원에서 청소근로자들이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노조 측의 요구를 최대 한 수용했고, LG트윈타워 근무 직원 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같이 합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 울러 노사는 상호간 합의사항을 성실 히 이행하고 근무지 이전 등 제반 사 항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중앙회

#### 기업승계 위한 자문 본격운영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 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단'을 구 성하고 기업승계 세무 상담 및 자문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단은 한국세무 사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국의 기업승계 세 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신청대상은 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희 망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 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기업승계 세제 상담 및 세제지원 요건 충족 여부 진단 등의 자문 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듀오백

#### 아동센터에 책상・의자 후원

듀오백이 지역아동센터에 올해도 선행 을 베푼다.

듀오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지역아동센터에 책상 22대와 아동용 독서 실 의자 44대를 후원한다고 2일 밝혔다.

듀오백은 지난해 7월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통해지역아동센터와취약계층가정 에 1000만원 상당의 책상, 의자 세트를 후원 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가정의 달을 기념해 아동 가정에 후원하는 아동용 의자 제품인 '밀키'를 구입하면 세이브더칠드런과 콜라 보레이션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제품 구입 시 일부 금액은 취약 계층 아동에게 후원하며 해당 사은품 지급 은 소진 시 조기에 끝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수도권 中企 절반 이상 "지방이전 고려"

#### 중진공, 2188개사 대상 설문 선호 지역은 대전 · 세종 · 충청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수요가 적지 않아 이들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 는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지방이전을 고민했고, 10곳 중 3곳은 아직도 이전 을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선호지 역은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대전・ 세종·충청권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이 중소벤처기업 2188곳을 대상 으로 '지역혁신성장 동력 발굴 설문조

### 中企 지역이전 및 고려여부



사'를 실시해 2일 내놓은 분석 자료에 서 나왔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중진공 외에 지만 '인재 확보의 어려움' (38.8%), '기

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는 지역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옮긴 기업을 제외한 잠재수요도 35.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업 단계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본 사나 공장의 입지조건'(36.7%)이었 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자리를 잡 을 경우 '지역 소재 발주처나 협력기 관과 연계'(35.1%)가 가장 큰 장점이 업 활동 인프라 부족'(15%)은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전을 고려했다가 실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협력사 연계 곤란 (39.2%)▲임직원거주 및 자녀교육 (38.9%)▲공간확보곤란(30.7%)▲인재 유치 어려움(26.8%) 등이 주를 이뤘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이전지역은 대전 ·세종·충청(57.9%)이 절반 이상을 차 지했다. 그 외에 부산・울산・경남 (27.3%), 광주·전라(16.2%), 대구·경북 (14.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42.5%가 정부보조금 등 이전 지원금을 가장 선호했다. 이울러 채용인력 인건 비 지원이 18.5%로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의 85.9%는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 홈앤쇼핑 '방방곳곡 프로젝트' 대상에 '아이엠군산' 선정

홈앤쇼핑이 '방방곳곡 프로젝트' 우수콘 텐츠를 선정했다.

2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함께 약 1억원 규모의 '방방곳곡'프로젝트를 진행해 약 18개팀에게 소상공인을 주제로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18개 팀 가운데 대 상은 '아이엠군산'이 차지했다. 아이엠군산 은 전북 군산 지역 내 영화시네마 스토어, 사진 스튜디오관, 70년 정통의 중화요리집 이야기와 그 안의 소상공인들의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콘텐츠로 심사위원 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주방가전 연구개발공간 '더 키친' 문 열어

향후 쿠킹클래스로 운영 계획

코웨이가 서울대 연구공원에 위치 한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에 소비자 관점의 주방가전 연구 개발을 위한 '더 키친(The Kitchen)'을 열었다.

2일 코웨이에 따르면 더 키친은 코

제품의 소비자 사용성 검증을 위한 체 험형 연구 공간이다. 제품을 사용하는 실제 주방 환경으로 구성해 코웨이 주 방가전의 기능 및 사용성, 소비자 감 성 품질 등에 대해 분석한다.

코웨이는 더 키친에서 서비스 현장 의 코디 및 임직원을 통해 주방가전의 웨이 전기레인지를 비롯한 주방가전 사용성을 평가받고 새로운 제품 개발

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간으 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코웨이는 더 키친 내 전기레인 지뿐만 아니라 코웨이 정수기, 공기청 정기 제품을 함께 구성해 기존 제품들 과 사용성을 연계한 연구를 통해 시너 지를 창출하고 제품 간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향후 코웨이는 더 키친을



주방가전 체험형 연구공간 '더 키친'.

통해 고객이 직접 코웨이 주방 가전을 체험하는 쿠킹클래스 공간 등으로 확 장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경찰 "한강 사망 대학생 상처들, 물길 에 부딪혀 난듯"
- ▲ 한명숙, 자서전서 "난 결백"… 진중 권 "파렴치하다"
- ▲ 정의용, G7장관회의 참석차 런던行 …한미•한일회담 주목
- ▲ 육군 중사, 축구 중 공 뺏은 병사 무릎 차 골절…형사처벌



- ▲ "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 딸들과 국 가예산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사진 뉴시스
- ▲ '김부겸 청문회' 증인 채택된 라임 핵 심들… 의혹 재점화?